

탐방

동서유리
공업(주)

유리병의 형태 변화 등 디자인 개발로 업계 선도

부서 독자업무 자율권 부여

수천 년 전 인류의 발생과 함께 보는 유리로서 처음 등장한 유리산업은 최근 포장의 한 분야로써 그 비중을 높여가고 있다.

1902년 우리 나라에 유리산업이 도입된 이래 근대적 시설을 갖추고 병유리를 생산하기 시작한 것은 1939년 아사히맥주회사의 자본으로 설립된 제2일본초자주식회사(해방 후 동양유리공업주식회사로 바뀜)로 주로 맥주병, 사이다병, 뒷병 등을 생산하였다.

국내 유리병산업은 1940년대초 태동기를 거쳐 경제부흥을 시작하던 60년대 중반부터 발전하기 시작하여 오늘날과 같은 대규모 공장으로서의 면모를 갖추게 되었다.

특히 유리병은 맥주, 소주 생산업체를 중심으로 태동하기 시작한 주류용병 생산과 탄산음료수 업체를 중심으로 한 음료용병 생산업체로 대별되고 있지만 현재는 그 외에도 화장품병, 드링크병, 식기, 컵 등 그 종류도 다양하고 형태 및 디자인도 독특한 면을 보여 기존 유리병의 개념적인 형태를 벗어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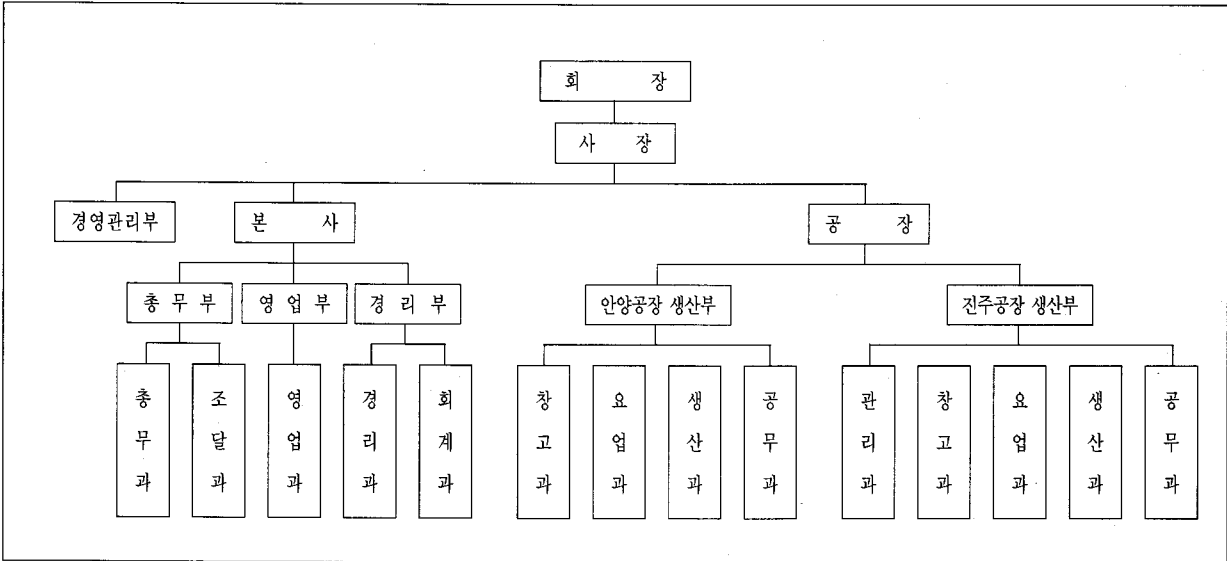
유리병은 태동 때부터 음료의 포장용기로 최고의 가치를 지녀 호황을 맞으며 급속한 성장을 해오다 80년대초 경기가 주춤거리자 성장이 퇴보, 병유리산업의 위기를 맞기도 했으나 80년대 중반 다시 본궤도에 올랐다.

그러나 종이용기인 테트라팩과 카톤팩, 플라스틱 용기인 PET병 등 신소재 용기의 등장으로 유리병 시장은 이들 신소재 용기들에 위축되어 많은 시장을 잠식당하는 위기를 겪게 됐다.

이같은 상황에서 1975년 12월9일 조선맥주(주)의 계열회사로 설립된 동서유리(대표 김영기)는 갈색의 맥주병 생산을 시작, 그 기반을 다져오고 있다.

안양천변에 위치하고 있는 동서유리는 우리 나라에서 맥주가 대중화되기 시작하면서 조선맥주가 자사에서 생산되는 맥주를 원활하게 포장해 내기 위해 설립됐다.

[표 1] 동서유리의 조직 기구표



동서유리는 안양에 본사 및 공장을 두고 있는데 안양공장은 1976년 8월에 가동을 시작했고 이어 1979년 6월 25일에 진주공장을, 같은해 10월에 수원공장을 가동하면서 유리병을 중심으로 하여 식기류, 맥주컵, 약병 등 생산품의 다양화에 나섰다.

유리제품의 등장 이래 70년대 가장 큰 호황을 누렸던 동서유리는 80년대 들어 주류소비의 감소와 경기의 부진으로 진주공장의 생산을 중단하는 어

려움을 겪게 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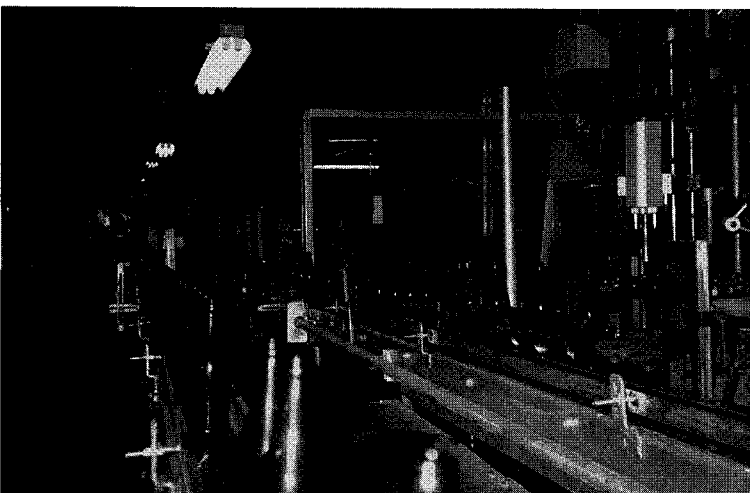
생산감축 등의 어려움을 노사간 화합으로 극복해 나온 동서유리는 이후 84년 3월 진주공장을 재가동하면서 새로운 전환기를 맞게 되고 설비의 현대화와 조직강화 등 변신을 시도, 86년 수원공장을 매각하였고 88년에는 진주와 안양공장의 용해로를 교체하고 풀가동에 들어갔다.

경기침체 극복 후 호기 노력

현재 동서유리의 1일 생산량은 안양공장이 45톤, 진주공장이 80톤이며, 주 생산품목은 유리병(식기류), 맥주병, 맥주컵 등으로 지난해 맥주병의 생산량은 7천만박스(50억원), 식기 3천6백만박스(75억원), 컵 1천2백만박스(28억원)의 실적을 기록했다.

이 회사의 올해 목표는 맥주병의 원가 상승요인과 판매신장에 힘입어 지난해보다 22%의 성장을 예상하고 있으며, 식기류는 품종 및 디자인, 형태에 따라 변동이 많아 올해에는 탄력적인 신장계획을 잡아놓고 있고 컵은 지난해와 같은 수준을 목표로 하고 있다.

동서유리는 현재 6개부 15개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3백10명의 종업원이 일치단결하여 노력하고 있다.



탐방

동서유리 공업(주)

이 가운데 경영관리부는 유리제조 기술개발에 대한 업무와 장단기 사업 계획 수립 및 업무합리화, 공장 신·증설 및 보수에 대한 관리를 하고 있어 동서유리의 중추적인 핵심부서로 알려져 있다.

더욱 이 부서의 기술개발팀은 유리 병 등의 형태변경, 디자인 개선으로 판매량을 높여 가는데 공헌하고 있으며, 공장의 가동에 따른 제반문제가 다루어지기 때문에 회사에서도 특별 관리를 할만큼 중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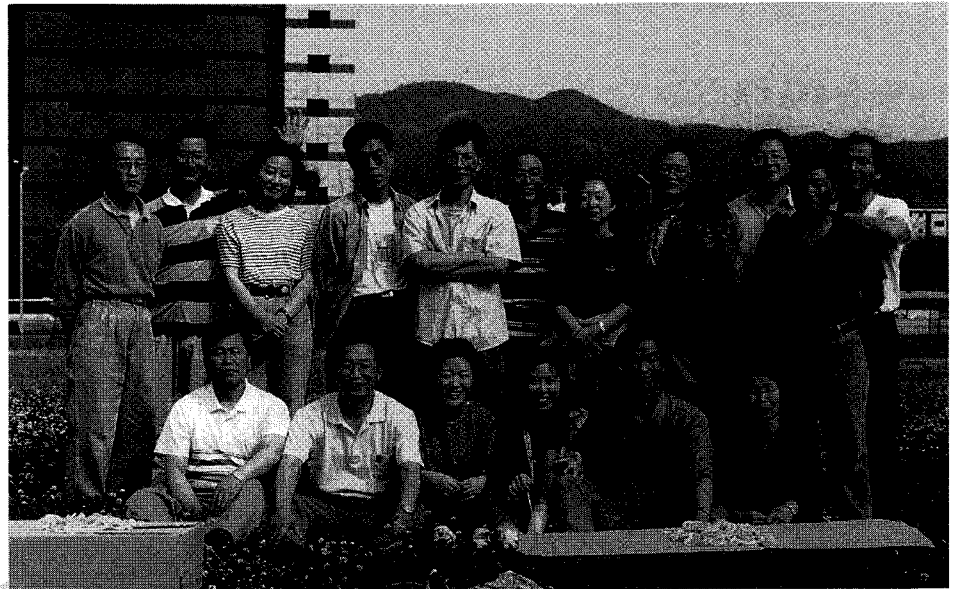
요업과에서는 용해로의 관리사항, 주원료 분석에 관한 사항, 환경관리에 관한 사항을 책임지고 있는데 최근 들

사항, 기계·기구의 유지관리, 전기, 용수에 관한 사항, 설계도 작성 및 보관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고 있다.

이들 부서는 동서유리의 가장 핵심적이고 특성 있는 부서로 다른 업체와 차별화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곳이다.

이렇게 잘 짜여진 구성이 현재의 동서유리를 이끌어왔고 앞으로 발전해 나가는데 제각기 동량의 역할을 할 것이라는 예상을 가능하게 했다.

올해 동서유리는 지난해 등장한 조선맥주(주)의 신제품 '하이트맥주'의 판매호조 및 경기회복으로 수요가 급속히 확대되고 있으며, 올해에는 지난



지난 5월
봄야유회를
마치고
기념촬영

어 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역할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생산과는 제조에 관한 사항, 제품 검사에 관한 사항, 제품 인쇄에 관한 사항 등 하나의 완성품이 나오기까지의 과정을 맡고 있다.

또한 공무과는 건물, 구축물, 기계 장치 설치, 개조, 시공, 검사에 관한

해 매출액인 1백50억원보다 20% 늘어난 1백80억원을 목표로 생산성 향상에 힘쓰고 있다.

또한 경영합리화 방안으로 공장 자동을 위한 설비의 개선, 생산성 향상 등 전반적인 회사운영의 효율화에 역점을 두고 추진중에 있다.

인정근무 위해 복리후생 적극

동서 유리는 직원들이 안정된 생활을 통해 근무에 충실하게 하는 방안의 일환으로 가족수당 지급, 자녀학자금(대학까지 2자녀)을 지원하고 있으며, 기숙사를 완비하고 미혼인 종업원들의 거취를 해결해 주고 있다.

또한 체력을 단련할 수 있는 운동 시설은 물론 체력단련비를 지급하여 건전한 정신과 신체적 건강을 유지, 이를 바탕으로 회사에 기여하도록 하는 복리후생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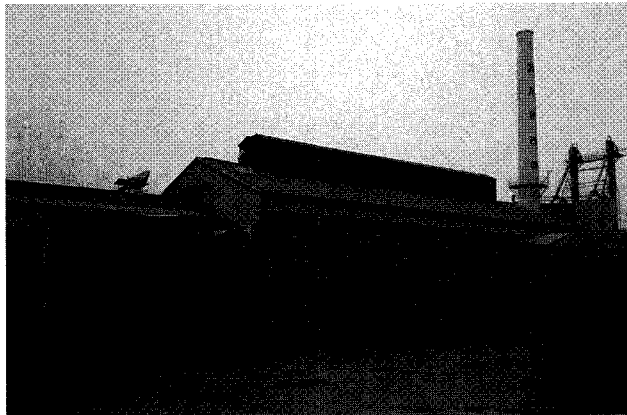
이와함께 똑같은 일을 반복하는데서 오는 지루함과 상실감을 덜어주기 위해 봄에는 전 종업원이 야유회를 갖고 장기자랑 등을 실시하고 가을에는 노사화합 체육대회를 통해 하나가 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 공동체의식을 키워나가고 있다.

동서유리의 사훈은 인화·근면·책임이다. 사훈에서 느끼듯이 자율적인 책임임수에 근면 성실하게 맡은 바 최선을 다하고 동료간의 화합 단결된 모습으로 새로운 기약을 하고 있다.

동서유리 종업원들은 원가절감, 정리정돈 등 주변의 조그만한 일에서부터 평가제를 도입하여 매월 종합 및 부분 평가에서 우수한 점수를 받은 개인 및 부서에 표창장과 함께 회식을 시켜주는 등 사기를 진작시켜 주고 있다.

올해 동서유리는 자동화 설비를 최대로 활용하여 3D현상 등으로 겪고 있는 인력난의 타개를 위해 노력하고 용광로 보수 등 다가올 국제화에 걸맞는 회사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동서유리는 각종 유리병 및 컵 등의 원료를 동양화학, 울산광업소, 한마통상, 한홍실업 등에서 구입하여 완



출고를 앞두고 팔레트에 적재된 유리병

성된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이 생산제품은 모회사인 조선맥주(주)에 갈색 유리병을 공급하고 삼화식품, 국제식품, 오뚜기제유(주) 등 유수업체들에 공급하고 있다.

유리산업은 부피가 크고 중량이 많이 나가기 때문에 내수나 근거리 국가와 교역이 활발한 품목이다. 그동안 다른 재질의 용기들을 유리병이 독점하다시피 한 액체류 포장용기 시장을 파고들면서 유리용기가 침체해 있었다.

그러나 세계적인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환경문제의 해결이라는 과제와 함께 재활용이 가능하면서 환경에 친숙한 소재의 용기적용이 늘어나면서 유리용기가 다시한번 전성기를 구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환경불 영향으로 전성시대

이러한 주변환경과 함께 동서유리는 모기업인 조선맥주의 판매 급신장과 제약사들의 드링크 판매, 일반 식품사들의 유리병 제품 개발 등 호조를 보이고 있다.

동서유리는 올들어 판매량 맞추기에 여념이 없고 그동안 누적됐던 재고

량도 거의 없는 상태이다. 물론 계획량을 생산하기 때문에 재고에 대한 염려는 없지만 가동을 감소, 돌발적인 판매량 감소로 인한 영향에서 벗어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동서유리는 이전에 화려했던 도약을 올초부터 준비해 왔다.

모회사 제품에 대한 용기공급에서 탈피, 병종류를 다양화 시키고 기능성 제품의 개발로 시장 수요를 개척해 나갈 것이며, 앞으로 진행되는 그린라운드(GR)와 시장개방에 따른 외국제품과의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용비의 나래를 펴고 있다.

산천의 조화가 어울어진 곳에 위치하여 미동을 시작하고 있는 거대한 화산처럼 동서유리도 힘찬 약진의 마그마를 용출하려 하고 있다.

급격한 변화를 원치 않으면서 서서히 튼튼한 건축물을 세워 나가는 건축가처럼 유리병업계의 앞날은 그들의 어깨에 얹혀 있는 모습이 상상된다.

유리병이 다시 떠오르기 시작하는 것처럼 동서유리의 움직임도 정중동의 약진을 시작하고 있다.

오선진 기자